데이터 분석하는 동형암호 기술, 수요 폭증한다

1. 기사 본문

동형암호는 암호화한 상태에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기술로,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 천 대표가 이 기술을 선보인 크립토랩은 동형암호의 단점인 계산 속도 저하를 수학적으로 해결한 '혜안(HEaaN)'을 개발하였다. 동형암호 국제표준안은 올해 채택될 전망이며, 인텔 등의 협력 그룹은 내년 하드웨어 기반도 갖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형암호 시장은 급성장할 전망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텔, 구글, NIST 등이 참석하여 연산 속도 저하 문제를 해결할 가상환경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DPRIVE)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CKKS라는 완전동형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미래 암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 키워드

-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 데이터형태를 유지하는 암호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암호 기술입니다. 즉,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도 그 데이터를 계산하고 처리할 수 있어서, 보안성과 개인 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분석과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의료, 금융 등의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URL - https://www.etnews.com/20230323000191